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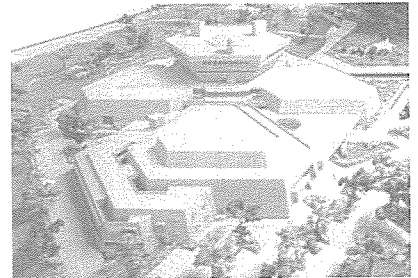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

세계 10대 사이언스센터의 하나 다양하고 특색있는 전시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약 4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며 정치와 경제의 실권을 쥐고 있는 중국인을 비롯하여 말레이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등이 복합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종과 계층별로 다양한 전통과 풍습, 언어,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말레이시아, 영국, 일본 등의 식민지이기도 했던 싱가포르는 동서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19세기 이후 동남아시아의 자유무역항으로 번창하고 있다. 약 3백20만의 적은 인구와 좁은 국토면적(6백46km²)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는 많은 관광 명소들이 있으며, 항상 깨끗하고 친절하고 도시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1백만명 이상 관람

여러 관광자원 중에서도 싱가포르의 중서부에 위치한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Singapore Science Centre)'는 세계 10대 사이언스센터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다양하고 특색있는 전시물을 갖추고 있으며, 1977년 개관 이후 매년 1백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과학관이다. 이 곳은 주룽 이스트역(Jurong East Station)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약 6천여종의 새를 볼 수 있는 '주룽 새공원(Jurong Bird Park)'과 아시아 최대의 민속촌으로 알려진 '당대(唐代)마을(Tang Dynasty Village)'이 있어서 이 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볼거리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의 전경

(Atrium)', '물리과학 갤러리(Physical Sciences Gallery)', '생명과학 갤러리(Life Sciences Gallery)', '비행관(Hall of Aviation)', '디스커버리 존(Discovery Zone)', '테크놀로지 갤러리(Technology Gallery)', '사이언스 홀(Hall of Science)' 등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8백50여점의 흥미있는 전시물이 있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의하면 이 곳의 전시물들을 모두 관람하기 위해서는 약 1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람객의 70% 이상은 이곳을 다시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언스센터의 1층 로비 중앙에는 다양한 주제의 현대적인 전시물들로 채워진 반구형의 '아트리움(Atrium)'이 인상적이다. '물리과학 갤러리'는 크게 '수학의 신비(Mathemagic)' 코너와 '정보통신관(Hall of IT)'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학의 신비' 코너는 다시 수학의 세계, 일상생활 속의 수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유발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싱가포르의 과학 수준과 현대과학의 현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전시관은 '아트리움



'물리과학 갤러리'에서 동작전시물을 조작하고 있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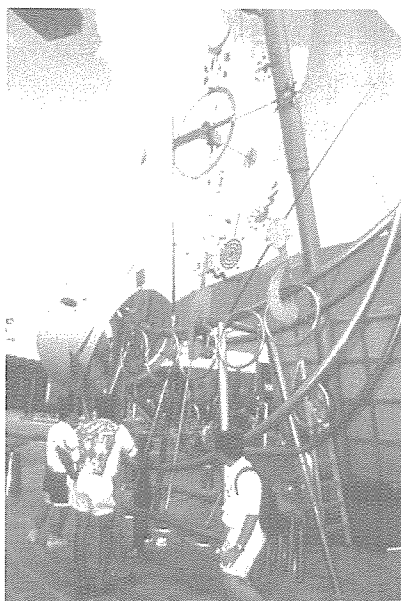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유발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건립됐다.
7개의 전시관에는 8백50여점이 전시돼 있으며 각종 실험실과 강의실을 갖춰
학생들의 학교 밖 탐구활동이 알차게 이뤄지고 있다.**

학, 기하학, 도형, 대칭, 게임과 퍼즐 등 9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편, '정보통신관'은 학교, 가정, 직장 및 영화와 오락산업에서 정보통신의 응용과 역할에 대해 체험형 전시물로 설명하고 있다.

'물리과학 갤러리'와 마주보고 있는 '생명과학 갤러리'는 사이언스센터에서 가장 흥미있는 전시관 중의 하나로서, '에너지', '시간여행', '인간과 환경', '생명공학' 코너로 구분된다. 70여점의 동작 전시물들로 채워진 '에너지' 코너는 8개의 전시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에너지의 기본원리, 에너지의 형태와 이동,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여준다. 생명의 진화 코너라 할 수 있는 '시간여행(Walk Through Time)' 코너에서는 태양계의 기원에서부터 출발하여 원생동물의 출현과 최초의 동·식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볼 수 있고, '인간과 환경(Man & Environment)' 코너에서는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과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감나게 연출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미래 한 눈에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Biotechnology)' 코너에서



'디스커버리 존'의 즐거운 관람객들

는 세포와 DNA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여러 결과물과 미래의 가능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생태공원(Ecogarden)'은 1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곳에는 각양각색의 양치식물 코너를 비롯하여 과실수, 수경재배, 생태실험실, 약용식물, 늪, 가로수, 미니 동물농장 등을 주제로 한 전시물들이 대표적이다.

아트리움에서 연결되는 '비행관'은 비행기의 발달사, 비행의 원리, 공항의 관제탑, 미래의 비행기 등을 전시

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유발은 물론이고 우주개발에 대한 꿈과 창의력을 심어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관 옆의 '디스커버리 존'은 특히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전시관으로 모든 전시물을 관람자가 직접 조작해 봄으로써 과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 사이언스센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전시관은 1987년에 문을 연 옴니극장(Omni Theatre)으로 23m의 돔형 스크린과 2백84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뛰어난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이 곳에서는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플라네타리움 쇼와 옴니맥스 영화를 상영한다. 마지막으로 비행관, 생명과학 갤러리, 물리과학 갤러리 사이의 6각형 건물 2층과 3층은 로봇과 레고 교실, 물리실험실, 생명공학실험실, 강의실 등이 있으며, 이 곳에서는 수시로 학생들의 학교 밖 탐구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㉟

李 貞 九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연구사)